

광주, 최악의 재정난 관광·문화 사업 위기

내년 예산 6조9083억 편성
IMF 이후 25년 만에 삭감
주요 예산 절반 가까이 줄어
435억 투입 상생카드 할인 등
일회성 사업 축소 의견도

광주시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면서, 주요 관광·문화·예술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올해보다 2019억원 줄어든 6조9083억원 규모 내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 연간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예산 삭감 여파는 주요 관광·문화·예술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관광 분야에선 아시아 예술 관광 중심 도시 조성, MICE(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산업 육성,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 제2전시장 건립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다.

아시아 예술 관광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내년에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예산 30억원과 비교하면 80%(24억원)나 줄어든 것이다. 특히 MICE 산업은 올해 93억 6000여만원과 비교하면 65억 751만여원(69.5%)이나 삭감돼 28억 5000여만원만 반영됐다.

DJ센터 제2전시장 건립도 올해 68억 2700만원에서 46억 2700만원이 줄어든 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균직한 사업 예산이 줄어들어 삭감되면서 광주시 관광 산업 육성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가동률 70%로 포화 상태인 DJ센터는 전시장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2026년 개관 목표인 제2전시장 건립 사업 예산 자체가 반토막 나면서 완공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또 올해 35억원이 투입됐던 '골뎀' 광주를 위한 빛의 로드 도심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은 겨우 12억 5000만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2026년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미디어아트 기반 문화광장으로 조성한다는 게 사업 취지인데, 내년 반영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문화 시설과 연계한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선 비엔날레 제2전시관, 광주 대표도서관, 하남 시립도서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등 건립 사업 시기가 대거 조정됐다.

사업별로 연차별 예산이 대폭 삭감됐거나 반영되지 않기도 해 사업 기간 연장, 완공 지연이 예상된다.

국·시비 1182억원이 투입될 비엔날레 제2전시관은 완공 목표 시점이 기존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밀렸고, 대표 혐오시설인 상무 소각장의 변신으로 기대를 모은 광주 대표 도서관, 광산구 첫 시립 도서관인 하남 도서관 완공 시기도 6개월 가장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광주시가 역대급 재정난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을 줄이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일회성 사업인 지역화폐(상생카드) 할인 유지에는 43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 등이 일고 있다.

시는 세수 감소 속에서도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는 '민생경제' 확립 차원에서 지역화폐 할인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선 예산난을 고려해 내년만이라도 지역화폐 지원을 일시 중단하고, 사업비 미확보로 차질이 우려되는 지역 미래산업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세입이 적기 때문에 세출을 줄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급성 등이 요구되는 문화·관광 예산을 살리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일회성 사업 예산은 줄이는 등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하루 앞둔 15일, 광주 남구 설월여고에서 수험표를 받고 고사장 확인을 위해 나서는 고3 수험생들이 후배들과 선생님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정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수능 ... 광주·전남 수험생 2만9552명

4년 만에 마스크 벗고 시험
비 예보...우산 꼭 챙기세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고3 수험생들이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관련 기사 7면>

올해 수능은 정부의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제) 배제 방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수능이어서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38개 시험장에서 1만6089명(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전남에서는 46개 시험장에서 1만3463명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1~2023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내내 착용하고 있어야 했던 마스크는 이번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

수험생들은 당일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이날 오전 8시 10분까지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유효기간 내 청소년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날씨 오전:흐림 6도·오후:흐리고 비 11도

챙기세요	두고가세요	도착하세요
신분증·수험표 우산·도시락 아날로그 시계	휴대전화·전자사전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증 등이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를 찾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외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이다.

시계는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시험장에 절대로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도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가져가면 안 된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잘 지켜야 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지를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선택한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책상에 올려두거나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다.

올해 수능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험 당일 오전부터 밤까지 종일 비가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16일 오전부터 밤까지 흐린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낮부터 기온이 훅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광주·전남 16일 아침최저기온 2~8도, 낮최고기온은 10~14도에 분포해 평년(아침최저기온 2~8도, 낮최고기온 14~16도)과 비슷하겠다. 광주·전남 16일 예상 강수량은 10~30mm로 전망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 전남경찰청장 송진채 발원 '충격' ▶6면
전남 여촌 바다 이야기 - 장흥 수문 여촌계 ▶11면
KIA 오키나와 캠프-선수, 영상으로 키운다 ▶18면

이 작품은 국민 최민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3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국민연금, 국가가 지금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제도!”

젊은 날의 노력이 값진 황금이 되는 연금술

국민연금,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노력이 노후의 빛나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지금을 보장합니다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PS 국민연금